

01 교회소식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해방됐어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며 자살까지 부르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주 안에서 깨끗이 치료받아 행복하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02 생명의 말씀

마음 다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다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루며,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영광 돌린다.

03 기획특집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님 닮은 마음을 이루니 물질의 축복이 넘친다는 이상백 장로와 기도받고 담석이 사라진 인도 어거스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40호 2014년 6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지옥 같은 아토피의 고통,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재록 목사 기도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해 초 아토피성 피부염의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30대 여성이 아토피가 악화된 여덟 살 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살해 충격을 주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소가 많고 면역계 결핍과 관련돼 있다.

그 외에 피부가 건조하고, 정상인에 비해 가려움증을 많이 느낀다거나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2012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국내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04만 명에 이른다. 실제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6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아토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 더욱이 소아 아토피는 어린이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소외감, 자존감 결여 등 성격형성 장애, 다른 질환으로의 이환 등을 초래해 범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박민희 유아(3, 사진1), 이민식 아동(9), 김예지 아동(12), 박세림 아동(12), 유승리 자매(15), 조화진 자매(19), 김수경 자매(29, 사진2) 등 수많은 성도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회개한 후 권능의 기도를 받으면 깨끗이 치료돼

김수빈 자매(26, 사진3)는 네 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고 고등학생 때는 붓고 짓무른 얼굴을 가리고자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였다. 대학생이 된 뒤에는 더욱 심해졌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것을 끊고 철저히 회개한 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아 깨끗하게 치료됐다.

현재 임마누엘성가대 대원으로 충성하는 수빈 자매는 “얼굴에 진물과 고름으로 밤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편히 잘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성악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꿈을 키우고 있다.

병원에서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던 박세희 자매(22, 사진5)도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고 2~3일 만에 온몸에 딱지가 앉더니 금세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 아토피는 물론, 여드름까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수정 아동(12, 사진6)은 세 살 때 아토피성 체질에 전염성 농가진까지 겹쳐 온몸이 보기에 흉측한 상황이었다. 부모 이대성, 김유미 집사는 어린 자녀가 아플 때는 부모의 잘못이 크다는 설교 말씀이 떠올라 그동안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진물이 다 마르고 상처 부위에 까만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이날 저녁부터 딱지가 떨어져 기도받은 지 3~4일 만에 완치됐다. 이후로 건강하고 밝게 자라 현재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워십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 손목을 붕대로 묶고 잠을 자야 했던 이지영 자매(21)와 친구들이 놀려서 한여름에도 반바지나 반팔 옷은 입지 못했다는 류누리 자매(14)도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됐다.

무안단물과 손수건 기도로 치료된 해외 성도들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멕시코 디렉터 다니엘 푸엔페스 아코스파 박사의 아들 다니엘(8)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 부위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다. 박사는 멕시코를 방문한 한국 WCDN 출장팀으로부터 “권능의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바르거나 마시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믿음으로 무안단물을 발라 주며 기도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간에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아프리카 케냐의 에릭 아동(8, 사진4)은 태어난 지 3주 뒤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다. 얼굴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엉망이었고 냄새도 매우 심해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런데 정명호 담임목사(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3주 만에 완치돼 갓난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세상 의학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비용, 수고와 재발 가능성이 따른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응답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치유됐다고 고백한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된 영계의 법칙을 알아 주 안에서 치료받으면 흉터나 합병증이 전혀 없고 재발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에도 살아 계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아토피성 피부염의 고통은 매우 끔찍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희고 깨끗한 피부와 신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37~40)

인생의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인내하며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면 장래가 보장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은 물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힘씁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마음 다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선한 말이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지, 섬기는 자세였는지’를 늘 점검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아래와 같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가?’, ‘상대가 잘되면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걸까 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보거나 낙심하지 않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사모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선을 사모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궁구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을 사모하는 자세이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에 대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예의 바르지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교양에 맞지 않으면 ‘교양 없고 무례한 사람’으로 여기지요. 또 내성적인 성품에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 자기주장을 하기보다는 대체로 상대의 뜻에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성품 탓일 뿐,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깐 매번 나만 손해 본다.’ 하면서 서운함과 불편함이 깊이 심겨집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양보했다고만 생각하므로 자기 악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또한 연단받을 때 믿음으로 참는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든 물질의 연단이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통과해 나가면 얼굴에 은혜가 더하지만, 억지로 꺾궂고 눌러 참다 보면 힘든 세월만큼 마음에 슬픔이 쌓이고 얼굴에 수심이 있지요. 그러니 오랜 세월 연단을 받으며 인내해 왔다 해도 축복의 길이 신속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성격도 좋습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면서 칭찬을 받지만 영적인 사모함은 별로 없습니다. 성결을 이루는 것보다 주어진 일에 더 관심이 있는 데다 성실하게 하니 자신은 섬기는 사람,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선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범사에 선을 추구해

마음 다해

나가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깨달아 그대로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 다해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는 열정을 다해 드러내는데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고 섬김의 모습이 부족하지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살피는 섬김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어도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합니다. 물론 남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변을 살피는 시야가 좁고 마음씀씀이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영을 간절히 사모해 부지런히 금식과 기도를 쌓아간다고 합시다. 봉사도, 물질로도 열심히 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지만 주변의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넓은 장소를 청소하기 위해 기관별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을 일찍 끝냈는데 다른 구역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다. 이럴 때도 마음을 더 넓게 쓰는 사람은 다른 구역은 왜 안 끝났는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살피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형편에까지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마음을 넓혀 사랑과 덕, 하나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기에 때문입니다.

셋째로, 마음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지요. 직분이 없어도 전도하고 심방하며 봉사할 장소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고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면 굳이 나서지 않고 개인적인 여유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명은 소홀히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크든 작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의 향으로 드러야 하지요.

예를 들어, 총회 때 기관장을 사모했는데 부기관장도 떨어지고 기관의 회계가 뒤틀리고 합시다. 이때도 마음 다해 드리는 사람은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해 회계의 직분을 귀히 감당합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방하며 기관장을 열심히 도와주지요. 반면 기관장일 때는 열심을 내다가 기관장이 안 되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임에도 오지 않는다면 이전에도 참된 충성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순간마다 몸으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럴 때 그 봉사의 향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과 사랑이 승해지고 주신 사명을 마음 다해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전 6:1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회개시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곧 성령의 근본 역사이자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본다.

1. 은사

은사는 성령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역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대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틀어 '은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구원, 치료, 응답받는 일도 은사에 속하며 개별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 이는 각 사람의 마음 그릇과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신다(고전 14:1).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능력이 되며 하나님과도 더 깊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사를 꺼려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전 12:31). 더욱이 목회자라면 양 떼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케 해야 할 것이다.

2. 깨달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일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지 진정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는 것도,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성령을 받지 못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3:5)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마 7:21)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요 16:8)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할 것도 알려 주셨다.

따라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히 12: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살전 5:22) 의를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할 것이다.

3.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전 2:10~11).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며, 앞일에 대해 예언할 수 있고, 영계의 깊은 계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이므로(요일 5:7)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임한 만큼만 역사하신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히 인도를 받으면 사업이나 일터에서도 쉽게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전도할 때나 심방할 때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떠올려 주신다.

보혜사 성령은 개인교사와 같이 자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신다.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거나 진리로 떠올려 주시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주관이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가령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면 성령의 주관이다. 여기에 순종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 나가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4. 기도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무리 고되게 일을 했어도 조금도 피곤치 않다. 졸음이나 잠냄도 틈타지 못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기도 제목을 성령이 떠올려 주시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다. 또한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도 한다(롬 8:26-27). 우리 마음과 성령이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다르다. 내 생각에 맞추거나 틀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장 쉽게 하나님 응답을 받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순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리되 먼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불같은 기도의 능력, 원수 마귀를 대적해 이길 믿음의 능력,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능력 등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무장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식 삼아야 성령의 주관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받아 기도할 수 있다.

2014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 06.29~07.05

01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5 ■ 지옥 10-14
- 요한일서 강해 41
- 창세기 강해 110 ■ 예언 1
- 십자가의 도 11-15 ■ 축복 3
- 믿음의 분량 9-13 ■ 생명의 씨 1-3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우리 삶의 등불 18

02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7 (이수진 목사)
- 마음의 향 1 (이미영 목사)
- 욥기강해 2 / 생령수 15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19 / 말씀 1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2 / 소인배 (정구영 목사)
- 큰 계명 (강경희 전도사)
- 내가 여기 있다 (신미은 교육전도사)

03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2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1
- 옛날 옛적에 6 ■ 찬양드려요 30, 1-2
- 모두 드려요 7-1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7
- 흥겨운 소리 6 ■ 향기 30, 1, 2, 15 ■ English 15, 1
- 아름다운 예배 8 ■ 뷰티풀라이프 1-2
- 만민지킴이 5 ■ 플로리스트 13-14, 1

04 해외성회 및 교육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2
- 회상 9-10
- 2013 기관장 교육 6-7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백 장로 (2대대 11교구, 55세)

1998년 7월 24일, 저는 처음으로 만민중앙교회 금요일 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인의 소개로 금요일야예배를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던 터라 저도 꼭 한 번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와 보니 과연 아내의 말대로 시종일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특히 찬양을 좋아했던 저는 준비찬양부터 성가대 찬양과 특송, 그리고 2부 찬양과 기도 시간 모두 천국에 온 듯 행복했지요.

그해 9월 첫 주,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면서 제 신앙생활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 IMF 금융 위기 때 두 차례의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적 의미 등을 깨우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회사가 불경기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정이 제 연봉만큼 적자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 측에 연봉이 적은 사람을 제 대신 고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여간에 마침 보험업 창업을 준비하는 장로님으로부터 함께하시는 제의가 있어서 퇴직을 했지요.

사실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낯선 사람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일반적인 브리핑 영업을 했으나 실적을 올리지 못하자 회사 측에서는 CEO 노무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제 직

성에도 맞고 재미있었지요. 이전 직장에서 회계, 노무, 인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기에 상담을 병행하며 보험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보험을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실적이 저조해 저축해 둔 돈은 물론, 담보대출 받은 것까지 바닥이 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제 영혼이 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대한 정도를 견고 파트너와 화평을 좇고자 했으며 사심과 욕심을 버려갔지요. 실적이 좋지 않을 때면 오히려 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실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습관처럼 했던 농담도 하지 않고, 죄성을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했

습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특히 마음 다해 찬양했다니 마침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계약 실적이 저조해 기본 월급을 주는 직장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저와 상담한 업체들과 계약이 잡히면서 다시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십일조 1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100만 원 정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4월부터는 이전과 동일한 멘트로 영업하는데도 상담 받는 CEO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업체 대표들이 또 다른 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행해 나갈 때 그대로 이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살롬성가대 및 브니엘중창단 총무, 교구 남조장으로, 아내 내는 구역장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전도인(부름받은 주의 종 3기)과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소리 선교단 단원으로, 작은딸은 크리스탈싱어즈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왼쪽부터 이상백 장로, 장녀 이정은 전도인, 차녀 이예은 자매, 아내 김명순 집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4.5mm 되는 담석이 사라졌어요” 라비 어거스틴 성도 (인도 델리)

저는 GTB 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교회 출석하고 있던 2011년에 지인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자옥』을 읽게 됐습니다. 저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고, 그 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min.org)를 통해 이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창세기 강해’ 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이재록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일, 저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쓸개(담낭)에 4.5mm의 돌이 있다며

지체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보장받는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화평치 못한 일들을 회개한 후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MRI 촬영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담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 온 가족이 이재록 목사님을 사랑하게 됐다. 왼쪽부터 라비 어거스틴, 아내 라타, 차남 아카시, 장남 아미티 이재록 목사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보이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1070-3601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6650-2046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전원맨션 2동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로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말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1026-1014
- 강동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서울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